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8



내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 장위동 효부 박순자의 삶 -



성북문화원
Seongbuk Cultural Center

내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 장위동 효부 박순자의 삶 -

내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 장위동 효부 박순자의 삶 -

김미경·김원식·박성민
신은주·조은영·오진아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8

내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 장위동 효부 박순자의 삶 -

구술자 박순자

지은이 김미경·김원식·박성민

신은주·조은영·오진아

엮은이 오진아

디자인 노세진

펴낸이 김영일

펴낸곳 성북문화원

주소 서울시 성북구 성북로4길 13-8

전화 02-765-1611

팩스 02-765-1619

성북문화원 www.isbcc.or.kr

성북마을아카이브 archive.sb.go.kr

(C) 박순자 · 성북문화원, 2023

ISBN 979-11-954544-9-5

발행일 2023년 12월 31일 초판 1쇄

이 책은 성북구청과 성북문화원이 협력하여 진행하는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의 일환으로 제작되었습니다.
2023년도 주민기록단 교육의 수강생 실습 결과물을 토대로
성북문화원에서 수정과 보완을 거쳐 원고를 완성하였습니다.

2023년도 주민기록단 교육

기획 강성봉

교육 오제연

운영 오진아·우성진

평범함 속 반짝이는 특별한 이야기

올해도 한 해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의 값진 노력이 열매를 맺었습니다. 성북문화원은 2018년부터 성북구청과 함께 ‘성북구 마을기록화 사업’을 추진해 왔습니다. 우리는 성북의 기록을 모으고 보존하는 동시에 다양한 콘텐츠로 재가공하여, 이를 성북마을아카이브를 비롯한 유튜브, SNS, 전시 등 다양한 매체로 주민들이 접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활동 속에서도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은 공동체 아카이브라는 마을기록화 사업의 취지를 자명하게 보여주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난 6년간 주민기록단 교육 과정에서 100명에 육박하는 수료생이 배출되었고, 20여 분이 주민기록단으로 활약하며 숨어 있던 성북의 이야기를 찾아내 주셨습니다. 그리고 2020년부터 발행해 왔던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시리즈가 어느새 8권과 9권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예로부터 9라는 숫자는 완성과 성취를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주민기록단이 그간의 성취를 발판 삼아 앞으로도 활약을 이어 나가길 기대합니다.

이번 구술생애사 책자의 주인공 두 분은 각각 장위동과 월곡동에서 살며 겪은 자신의 역사를 우리에게 나누어 주셨습니다. 두 분 모두 70년대 서울로 올라와 일을 하고, 자녀를 기르는, 어쩌면 우리 현대사의 흐름과 궤를 같이하는 보통의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 있습니

다. 하지만 그 일상적인 이야기를 자세히 들여다보면 두 분만의 특별한 경험과 역사가 반짝거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똑같이 보이는 모래 사이에서 반짝이는 금을 찾을 수 있는 것처럼, 평범한 이야기 속 반짝이고 특별한 이야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이 구술사의 매력이 아닌지 생각하게 됩니다.

우선 당신의 기억을 하나하나 꺼내 우리에게 나눠주신 구술자 두 분께 깊은 감사의 마음을 전합니다. 그리고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가지고 8주라는 짧지 않은 기간 동안 성실히 교육과 과제에 임해주신 주민기록단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또한, 깊이 있는 이론적 배경과 다양한 현장에서 쌓은 경험을 아낌없이 강의에 쏟아주신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께 감사드립니다. 끝으로 무사히 교육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보이지 않는 곳에서 노력한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의 노고에 격려를 보냅니다.

성북문화원은 언제나 그렇듯이 우리 주변 이웃들의 이야기를 찾고, 기록하고, 지키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앞으로의 활동도 많이 기대해 주시고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성북문화원 원장 김 영 일

토박이가 만든 성북, 이주민이 만든 성북

어느 사회든 그 사회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태어날 때부터 사회 일원이었던 사람들과 새로이 사회 일원으로 합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동화되어 함께 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인류 역사를 보면 세계적인 대제국이 만들어지거나 문명이 확산할 때 이 같은 모습을 쉽게 발견할 수 있습니다. 한 나라나 민족의 흥망성쇠도 마찬가지입니다. 개방적이고 융합적인 나라와 민족이 융성하고, 반대로 폐쇄적인 나라와 민족은 결국 쇠퇴하는 모습 역시 역사에서 늘 반복됩니다.

지역의 역사야말로 토박이와 이주민의 결합으로 만들어집니다. 대한민국의 수도 서울의 경우 1953년 6.25전쟁의 휴전이 이루어질 당시 인구가 100만 명 정도였습니다. 그러나 불과 6년 만인 1959년에 2배, 즉 200만 명으로 증가한 뒤 1963년 300만 명, 1970년 500만 명, 1976년 700만 명, 1983년 900만 명을 거쳐 1988년에 1,000만 명을 돌파했습니다. 이 같은 서울의 급속한 팽창은 베이비붐과 같은 자연발생적인 요인에 따른 것이기도 하지만, 그보다 더 큰 이유는 ‘이촌향도’, 즉 농촌을 떠나 도시로 이주한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이번에 구술해 주신 분은 박순자님과 박두순님입니다. 박순자님은 경북에서 태어나 생활하시다가 결혼 후 가족들과 함께 장위동으로 이주 및 정착하셨습니다. 박두순님은 충북에서 태어나 생활하시

다가 역시 결혼과 함께 월곡동으로 이주 및 정착하셨습니다. 두 분 모두 1970년대 전반기에 성북으로 이주하였으므로 성북에 정착한 지 50년 정도가 지났습니다. 따라서 두 분의 생애사는 이주민이 만든 장위동과 월곡동의 역사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작년 2022년 구술 채록집이 성북의 토박이 두 분을 다뤘던 만큼, 이번 책을 작년 책과 같이 읽으면 성북의 역사를 풍부하게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구술을 허락해 주시고 장시간 인터뷰에 응해주신 박순자, 박두순 선생님께 깊이 감사를 드립니다.

이 구술 채록집은 2023년 성북구 주민기록단 교육의 성과입니다. 성북문화원은 주민들이 직접 성북 지역의 역사를 기록하는 주민기록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쁜 가운데도 많은 분들이 주민기록단 교육에 참여하여 구술사의 이론과 방법을 배우고 이를 활용해 매년 구술 채록집을 만들어 냅니다. 특히 이번 2023년 주민기록단 교육의 경우 그 어느 때보다 집중도가 높았고 활기가 넘쳤습니다. 적극적으로 교육에 임해주신 주민기록단 여러분들에게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언제나 주민기록단 활동을 물심양면으로 지원해주시고 이 책이 나올 수 있도록 애 써주신 성북문화원 오진아, 우성진 선생님께도 함께 감사 말씀을 드립니다. 모두 고생 많으셨습니다.

2023년 12월
성균관대학교 사학과 교수 오 제 연

머 리 말

몇 차례 인터뷰하다 보면 같은 이야기도 구술자가 조금씩 다른 버전으로 들려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인터뷰를 책으로 다듬으면서 내용의 검증도 중요했지만, 인터뷰 과정에서 느꼈던 구술자의 말맛을 살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저마다 가지고 있는 말버릇, 어조에서 나오는 생동감이 구술의 매력 아닐지 생각해 봅니다. 이를 활자로 다 담을 수 없겠지만 이 책을 읽는 독자들도 느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번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의 여덟 번째 주인공은 장위동의 박순자 님입니다. 아쉽게도 지면 관계상 인터뷰에서 들었던 모든 이야기를 다 담지는 못했습니다. 구성은 ‘1부 내 고향은 아주 산중이에요’, ‘2부 장위동에 터를 잡고’, ‘3부 가족들 이야기’, ‘4부 장위동과 그 주변의 변천사’, ‘5부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로 주제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박순자 님의 삶을 그렸습니다.

1부는 구술자가 고향에서 있던 일을 중심으로 이야기를 구성하였습니다. 고향 경북 김천시에서 나고 자라며 겪은 6.25전쟁과 학창 시절, 그리고 결혼에 이르기까지의 이야기가 펼쳐집니다. 구술자가 겪은 전쟁이 한창이던 그 날밤의 두려움은 우리 현대사의 아픔을 생생하게 느낄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2부는 구술자가 장위동에 정착한 과정을 담았습니다. 고향을 떠나 장위동으로 왔을 때 느꼈던 생경함, 아직 개발이 많이 진행되지 않았

던 70년대 장위동의 모습을 알 수 있습니다. 특히 가발공장의 존재와 그 공장의 폭발 사고는 당시의 주민이 아니면 알기 어려운 이야기기에 지역사로서 큰 의미가 있습니다.

3부는 박순자 님의 가족들 이야기를 중심으로 엮었습니다. 구술자가 들려주는 남편과 아들, 시어머니와 며느리에 관한 이야기를 통해 가족 안에서 여성의 삶을 엿볼 수 있습니다. 또한 며느리로서의 느꼈던 감정과 시어머니로서의 며느리를 대할 때 느끼는 감정의 변화는 이 장의 재미난 점이기도 합니다.

4부는 구술자가 기억하는 장위동의 변화에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역 주민으로서 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된 복서울 꿈의 숲, 장위시장, 장위동 고개 등과 관련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특히 장위시장의 변성과 쇠퇴, 장위동 봉제단지의 조성 and 입주 여건의 변화는 오랜 기간 장위동에서 산 주민이 아니면 알 수 없는 이야기일 것입니다.

5부는 이웃과 함께하는 삶을 사신 구술자의 인생관을 엿볼 수 있는 장입니다. 늘 남들과 더불어 사는 삶을 살며 끊임없이 자신의 역할을 찾는 모습은 우리에게 귀감이 됩니다. 이 책은 50여 년간의 장위동의 변화를 다룬 지역사 책이기도 하지만 주어진 바를 받아들이고, 묵묵히 자기 앞의 생을 걸어 나간 박순자 님의 자서전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오늘을 살았던 그 이야기를 함께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2023년 12월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연구원 오 진 아

차례

발간사	6
축사	8
머리말	10
약력	15

1부 내 고향은 아주 산중이에요 17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다	19
두려움에 떨었던 전쟁의 밤	21
우등생이었던 학창 시절	24
양조장 집 장남과 결혼하다	29

2부 장위동에 터를 잡고 35

상경이 결정되다	37
미나리팍 장위동	39
경북북덕방과 식품가게	43
가발공장 폭발 사고를 목격하다	46

3부 가족들 이야기 49

사람 좋던 남편, 부전자전 야무진 아들	51
우리 시어머니 훌륭한 분이세요	56
효부상을 받다	59
머느리가 마음은 있어도 내색 못 했다는 걸 알아요	61

4부 장위동과 그 주변의 변천사 65

공주 능이 복서울 꿈의 숲이 되기까지	67
장위시장이 옛날엔 훨씬 컸어요	71
동방주택, 동방부자, 장위동 고개	76
지금도 지하는 전부 봉제공장이예요	79

5부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83
47년 동안 반장을 했어요	85
놀면 뭐 해	88
주변 사람 잘 거두면 언젠가 덕 볼 때가 있겠죠	90
에필로그	94
이미지 출처	98



약력

1942년	경북 금릉군 어모면 구례리에서 태어남 ¹⁾
1950년	6.25 전쟁 발발 당시 고향에서 전쟁을 경험
1953~54년	구례국민학교 입학
1962년	한동네의 양조장집 장남과 결혼하여 양조장 운영을 도움
1967년	외아들을 낳음
1970년	서울 성북구 장위동 75-368로 이사 남편은 경북부동산, 본인은 집에 딸린 점포를 운영
1985년	성북구청으로부터 효부상을 받음
1986년	남편 사망
1987년	시어머니 사망
1990년	장위동 첫 집(장위동 75-368)을 재건축
2007년	아들 내외의 분가
2018년	현재 거주지로 이사

1) 정확한 생년을 확인할 수 없어 출생 신고를 기준으로 작성되었다.

면담정보

1차면담

면담자: 오진아, 우성진, 김원식

녹취자: 오진아

면담장소: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사무실(성북구 장위로33길 31)

면담일자: 2023년 8월 2일

2차면담

면담자: 오진아, 김미경, 김원식, 신은주, 조은영

녹취자: 오진아, 김미경, 박성민, 신은주, 조은영

면담장소: 장위9구역 공공재개발 준비위원회 사무실(성북구 장위로33길 31)

면담일자: 2023년 10월 7일

※ 공식 면담 이외에 여러 차례 비공식 인터뷰 진행

1부

내 고향은 아주 산중이에요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다

● 고향이 어디고, 가정환경은 어떠셨나요?



경북 금릉군 어모면 구례리²⁾라는 곳인데 거기가 아주 산중이에요. 김천에서 한 12km 들어가는 곳인데, 그냥 농사짓고, 먹고 살았어요.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지도.
구례리는 어모면의 북쪽에 위치한다.

2) 현 경상북도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를 말한다. 금릉군은 1995년 1월 1일 김천시와 통합되면서 폐지된 행정구역이다.

● 가족관계는 어떻게 되세요?



딸만 넷인데 내가 막내딸이에요. 옛날에는
터울이 들쭉날쭉해요. 제일 큰언니는 살아계
셨으면 한 100, 90살이 넘었지, 내가 80살이
넘었으니까. 우리 엄마는 막내(나)를 낳고,
제일 큰 언니는 만이를 낳고…. 그렇게 이모
하고 조카하고 같이 컸어요.

● 고향에 대한 특별한 추억이 있으신가요?

맨날 밥 나오고 모 심고, 여름 지나면 가을이고, 가을 되면 추수하
면 또 재밌고, 그런 거죠. 남자들은 농사짓고 여자들은 길쌈하고 자
식들 키웠어요. 그때는 대마를 대마인 줄도 모르고 집집마다 다 심
었어요. 밭에 풀이 크는 거를 실로 만드는 과정에 일이 엄청 많아요.
논 한 100평 정도에 우리 키로 한 2배 정도로 키워서 그거를 큰 쇠술
에다 삶아요. 삶은 걸 이제 껍질을 벗기면 겨릅대³⁾랑 삼 껍질이 나와
요. 삼 껍질을 쪼개고 비벼서 실을 만들고 베를 짜서 옷을 해 입는 거
예요. 엄마들은 돈 버는 게 아니라 그게 일이에요.

● 베 짜는 것도 직접 해보셨나요?

베를 베틀에 짜서 완성하는 거는 어른들이 하고, 나는 베 짜는 건
못 배웠으니까 재료 준비를 도왔어요.

3) 껍질을 벗긴 삼대

두려움에 떨었던 전쟁의 밤

● 6.25 전쟁 때 피난은 가셨어요?

피난 못 갔어요. 지게에다가 이불 싸고 이제 가자고 싸놔더니 우리 아버지가 설사에 걸리신 거야. 지금 같으면 약 먹으면 덜컥 들을 텐데 약이 없으니까 아버지가 “나 못 간다, 안 간다.”라고 하세요. 그래서 동네 방천 독에 엄마하고 갔어요. 가니까 막 비행기가 폭격하고 밖에서 사람들은 나무 밑에 숨어 앉아 있었어요. 나무 밑에서 웅기종기 앉아서 여름이니까 냇물에 세수도 하고 그러다가 집에 들어왔어요.

● 다른 피해는 없으셨나요?

여름에 한창 삼 삼을 때인데, 저녁에 이렇게 앉아서 삼 삼는데 비행기가 막 내려와서 “엄마 저게 뭐야?” 하니까 ‘뽕’ 해요. 인민군 내려오니 철길을 끊으려고 폭탄을 때린 거예요. 우리 집이 철길 옆에 살았는데 철길 가운데 두고 반대편에 폭탄이 떨어진 거야. 반대쪽에 떨어져서 살았지, 안 그럼 죽었을 거예요. 그때 우리 언니 하나 하고, 우리 엄마, 아버지 그렇게 넷이 있었는데 캄캄해서 찾을 수도 없어요. 나는 “엄마, 엄마” 하면서 찾고 엄마는 날 찾았는데 한참 있으니까, 석탄이 가라앉고 먼동이 트더라고요. 옛날에는 검은 솔 큰 거에 밥을 했는데 솔뚜껑이 저기 날아가 있고 숯덩이 날아다니고…. 앞에 도로에는 보니까 미군이 하나 짝 엎어져서 죽고 그런 거 다 봤어요.

폭탄이 떨어지고 난 후에 며칠 동안 검은 석탄 같은 게 코를 풀어도 나오고, 기침을 해도 나오고 그랬어요. 그렇게 폭탄을 세 군데 맞았는데 한 곳은 못처럼 웅덩이가 생겼어요. 그때는 포크레인도 없고, 무슨 재주로 흙을 날라서 메울 거예요. 논에다 그렇게 해놔서 농사도 못 짓고 몇 년을 방치하니까 나중엔 그 웅덩이에 붓어가 커서 돌아다닐 정도였어요.



1951년 경북 김천시 외곽의 산자락 아래 철로 변 가옥들이 폭격 피해를 당한 모습

● 전쟁 직후에 그렇게 피해당하신 거예요?

그렇죠. 한 번은 또 밤에 네 식구가 자는데 막 전깃불 같은 게 번쩍번쩍하면서 여기서 돌아서 저리 나가고, 여기서 돌아서 저리 나가요. 기관총을 쏜 거예요. 시골집은 뗏마루⁴⁾가 있는데 총알이 뗏마루를 뚫고 들어와서 저 뒷벽을 뚫고 나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니까 여기 저기 기관총 빠져나간 구멍이 많아요. 그 밤에 막 불이 번쩍번쩍번쩍 하니까 우린 죽었다 싶어서 ‘서럽구나’ 생각했는데 그래도 네 식구가 살았어요. 아침에 보니까 뗏마루에 기관총 드르륵 긁고 간 자국이 있고, 서까래 사이로 구멍이 뽕뽕 뚫려 있어요. 총알이 긁고 나가서 다 행이지 그거 무너졌으면 우리 식구 다 죽었을 거예요.

4) 뗏마루의 방언으로 지붕 가운데 부분에 있는 가장 높은 수평 마루를 말한다.

우등생이었던 학창 시절

● 학교는 어디 다니셨어요?

구례국민학교(초등학교).⁵⁾

● 학교 다니실 때 6.25 전쟁이 났던 건가요?

전쟁 끝나고 갔어요. 열여섯인가 열일곱인가에 졸업했으니까…. 출생 신고를 늦게 해서 친구들은 학교 가고, 나도 학교는 가고 싶은데 학교를 못 간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악착같이 엄마 손을 붙들고 학교 보내 달라고 해서 학교에 갔어요. 학교에 갔는데 나이가 많아서 1학년에 입학할 못 시킨대요. 공부 꼭 하고 싶냐고 교장 선생님이 묻더라고요. 하고 싶다고 그러니까 2학년에 넣어줬어요. 2학년이 들어가니까 나는 ‘박순자’ 이름도 못 썼는데 애들은 책을 줄줄 읽어요. 그래서 열심히 공부해서 그 해에 우등상을 탔어요. 한 60명 되니까 우등생 6~7명을 뽑더라고요. 그렇게 성적이 항상 앞장서서 다녔어요.

● 어떤 걸 배우셨나요?

국어, 산수, 자연, 과학, 또 사회생활 책인가? 사회생활은 시간이 되면 줄리고 하기 싫었는데 산수하고 국어하고 자연하고는 좋았어요. 그때는 몰자도 엄청 귀했어요. 연필을 사기도 힘들고 몰자도 귀하고…. 여름 방학 때 되면 방학 책이 반에 한 권, 두 권 나와요. 그러

5) 김천시 어모면 구례리 626에 있었던 초등학교로 1989년 3월 1일 어모초등학교와 통합하였다.

면 한 권은 선생님이 가지고 계시고, 한 권을 갖고 돌려봤어요. 옛날에 백노지(하얀 갱지)라는 게 있었어요, 아주 깨끗한 것도 아니라 누런 거. 그거 사서 자로 잘 그고 여름 방학 때 그 방학 책을 다 베껴어요, 책 꺼풀까지. 그걸 만드니까 공부가 더 돼요. 한 자 한 자 다 보고 적고, 색칠도 해야 하고 그러니까. 그 방학 숙제물이 또 상을 타서, 방학 끝나고 방학 책을 아침 조회 시간에 선생님이 갖고 나오셔서 “이런 정신으로 공부를 해라.”하고 애들한테 다 보여줬죠.



졸업식 때 졸업앨범 대신 준 엽서 형태의 사진

● 모범생이셨네요.

한 번은 4학년 때 군 단위 사생대회가 있었는데 내가 대표로 나갔어요. 금릉군에 있는 학교 다 김천 시내 중앙에 있는 초등학교에 모아두고 산에 올라가서 김천 시내 풍경을 그리라고 해요. 나는 초가집, 야산, 들, 모내기 이런 거 밖에 못 봤는데 시골에서 보지도 못한 빌딩도 있고, 성당도 있고 별거 다 있으니까 색칠도 덜하고 냈어요. 근데 한참 있다가 우리 집 옆에 교육청 다니는 직원이 와서 “야, 순자야 너 한 톱 내라.” 이래요. 내가 “왜요, 아저씨?” 그러니까 입상을 했다는 거야. 입상도 그냥 입상한 게 아니라 특선으로 금릉군에서 하나 뽑혔다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한테도 그 소리를 하니까 막 온데 다니며 자랑하셨죠. 그리고 있다가 상품하고 표창장하고 액자에 넣어서 학교로 왔어요. 상품으로 두꺼운 영어책 하나 주고, 상장은 교장실에다 걸고 안 주더라고요. 지금 같으면 찾아올 텐데.

● 친구들하고는 어떻게 지내셨어요?

나이 먹고 들어갔으니까 제대로 들어간 애들은 동생같이 좀 어려워요. 그러니까 아침에 가면 애들이 “아우 나 숙제 좀 맡아줘. 답 좀 맞춰줘.” 그래요. 이제 또 그거 안 맞춰줄 수 없으니까 다 맞춰주고 선생님에 숙제한 거 내놓으라 그러면 숙제한 거 읽을 수도 있고 답도 맞춰보고 하도록 그렇게 도와줬어요. 그리고 점심시간 되면 나가서 공놀이 하고 고무줄놀이 하고 그랬죠. 그때는 학교 실습지에 고추 심어놓고 마늘 심어놓으면 우리가 가꿨어요. 그거 따다가 도시락하고

점심시간에 먹었어요. 그럼 엄청 맛있었어요.



졸업식 사진



6학년 때 담임선생님과 함께

● 공부를 더 하고 싶지는 않으셨어요?

담임선생님이 좀 안타까워했어요. “상급학교 진학을 했으면 좋은데, 좋은데…” 하면서. 선생님이 작년에 돌아가셨는데 계속 연락하고 지냈어요. 담임선생님이 “내가 좀 잘해 줄 텐데, 내가 때로는 시내 나갈 차비도 없었어. 나도 없이 살았어.” 이러더라고요. 근데 나 이도 먹고 형편도 그렇고 당시는 우리 아버지가 “아이고, 내 이름자 알면 됐지, 편지 읽을 줄 알면 됐지. 그만 배우라.” 맨날 그 소리를 해요. 그러니까 그냥 끝냈어요. 그때는 먹고살기 바빴으니까요.

양조장 집 장남과 결혼하다

● 남편분과는 어떻게 만나셨어요?

반 연애고 반 중매고 그래요. 다 한동네 살고 그때는 그냥 아저씨라 불렀죠, 8살 인가 차이 나니까. 그렇게 친구들하고 “아저씨 우리 찢빵 사줘요.” 하면 “가자, 가자.” 그래요. 우리 아저씨 집이 양조장 하니까 여유가 있었어요. 그래서 역전에 할머니가 찢빵 파는 데서 한 판 사면서 “너희 실컷 먹어, 실컷 먹어.” 이러면 우리는 좋다고 뜨신 거 얼어먹고 오는 거죠. 한 번은 시내에 뭐 먹으러 가자해서 따라갔더니 사진관으로 갔어요. 난 촌색시니까 그런 데 잘 안 나갔는데, 따라갔더니 사진관에서 옷을 빌려 입혀서 사진을 찍더니 우리 색시감이라고 이것을 지갑에다 넣어 다녔어요. 그렇게 같이 노니까 중매가 들어와요. 시골은 처녀가 있으면 자꾸 시집가라 그래요. 시누가 “아니 저 아까운 아이를 어디다 보내느냐. 우리 오빠하고 하자.”고 다리를 놔줬어요. 신랑이 처음엔 “아이고, 맨날 데리고 놀던 동생 같은 사람을 무슨 장가가라 하느냐.”고 버럭버럭해요. 그렇게 하더니만 또 같이 놀고 정이 들어서 살았어요.



남편 장천한 님

● 결혼식은 언제 올리신 거예요?

스물하나에 결혼했어요. 정월달, 음력 1월 달에. 설 전에 이야기해서 설 전에 하자 했는데 내가 무슨 시집을 그리 금방 데리고 가느냐고 안 간다고 뻔했더니 “그러면 설 쇠고 갈래?” 이래서 음력 정월 스무이튿날, 시아버님 진갑⁶⁾ 생신날 아침에 시집을 간 거예요.

● 결혼식 때 찍은 사진이 있던데 혼례 과정 좀 설명해 주세요.

이 사진들은 시동생이 찍어준 거예요. 옛날에는 신랑이 아침에 친정에 오면 거기서 혼례하고 첫날 밤은 친정에서 자요. 하룻밤 자고 시댁으로 가마 타고 가서 마당에 내려놓으니까 가마 문을 젖히고 찍은 거예요. 그때는 사진이 귀할 텐데 그래도 부잣집이니까 카메라가 있어서 시동생이 찍어줬어요. 이 가마도 앞에 두 사람, 뒤에 두 사람 넷이 메는 사인교예요. 안에 방도 크고, 꽃도 많고, 편한 좋은 가마를 우리 시어머니가 구해오셨어요. 좋은 거 해주라고 해서. 근데 친정이랑 시댁이랑 가까우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이때 못 타면 못 타고 저리 한 바퀴 둘러서 오라고 가마 지고 가는 사람에게 시켜서 한 바퀴 동네를 빙 둘러서 시댁으로 갔어요. 이제 오니까 며느리 왔다고 상을 차려줘요. 그거 먹고 나서 종일 이렇게 앉아 있어야 해요. 사람들 구경하게. 아랫목에다 앉혀놓으면 이 ‘대변’이 있어요. 지금으로 말하면 비서, 이 사람이 색시 심부름해 주는 거죠. 시댁 육촌 동서쯤 되는 분이 그날 대변으로 앉아서 날 수발해 줬어요.

6) ‘환갑(還甲)보다 한 해 더 나아간 해’란 뜻으로 만61세가 되는 생일을 말한다.



전날 친정에서 혼례식을 마치고,
다음날 시댁에 도착해 가마 안에서 내리려고 하는 모습



가마에서 내린 후 며느리에게 새로 차려준 상을 받고 식사하는 중이다.



식사 후 아랫목에 앉아 있는 모습, 밖에서는 동네잔치가 열렸다고 한다.

● **시집가서 시댁 식구분들이랑 사셨는데 몇 분이 같이 사신 건가요?**

아버님, 어머니, 시누들, 그리고 시동생 부부…. 술도가 집이니까 맨날 사람이 벽적벽적했어요.

● **집이 꽤 컸겠네요.**

그렇죠. 컸어요. 농사도 짓고 가축도 키우고, 양계도 하고, 누에 치는 것도 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욕심이 많으셔서 모도 심고, 밭도 일구고, 누에도 치고 돈 되는 건 다 하셨어요.

● 주로 무슨 일을 하셨나요?

우리 동서는 식모가 하나 있으니까 부엌일을 맡고, 나는 바깥에 일꾼들에게 일 시키는 거를 했어요. 모내기 같은 일 있으면 시키고, 또 술도 빚어야 하니까 술 만드는데 원료도 사다 날라야 하고, 그런 거 저런 거 바깥일을 서둘러 줬죠. 우리 동서는 식모하고 밥만 막 해재 꺼요. 아침하고 나면 설거지, 다 하면 점심해야 돼, 우리 동서는 애 넷을 낳았는데 나는 그동안 아이가 없으니까 일이 더 힘들어요. 애 있는 사람은 애 젖먹인다고 쉬고, 재운다고 쉬고 하는데 애 없는 사람은 종일 일해야 돼요.

● 술도가 상호는 무엇이고, 규모는 어느 정도였나요?

내령 양조장. 그 옆에 산이 내남산이라서 그 산 이름 따가지고 내령 양조장이라고 지었어요. 배달하는 사람들은 한 3명? 술 걸러서 주점에 갖다줘야 하니까. 농사일하는 사람들은 따로 있었죠.

● 술 빚는 것도 다 관리하신 거예요?

우리가 처음에 쓰던 누룩이 있어요. 곡자(麴子) 그거를 25장씩 넣고 쌀 한 가마 찌고 술빚으면 걸러서 배달하고 그랬어요. 근데 그 뒤에는 이 누룩이 안 좋다고 쌀을 띄워서…. 중국(누룩 종자)이라는 게 있어요. 찹쌀같이 원료가 있는데 그걸로 쌀을 고두밥을 찌고 비벼요. 그리고 벽이 이만큼씩 두꺼운 집을 짓고, 그 안에다가 난로도 없이 그 고두밥을 띄워요. 그렇게 띄우면 뽕오얏게 균사가 피어요. 그 원

료를 넣어서 이제 술을 빚으면 술이 뽕양고 건더기도 덜 나오고 그
래요. 그걸 밤에 몇 시간씩 뒤집어 줘야 하니까 기술자를 뒀는데 이
제 내가 보고 배워서 그 사람 내보내고 내가 떠났어요. 뭐든지 내가
해봐야 된다고 덤비니까 배워지더라고요. 그런 걸 옆에서 자랄 때부
터 우리 시어머니가 다 눈여겨보고 틀림없다 싶어 데리고 간 거 같
아요.



고향집에서 아들과 조카를 찍은 사진
뒤에 있는 큰 독은 원래 술독이었으나 장독으로 사용했다고 한다.

2부

장위동에 터를 잡고



상경이 결정되다

● 서울엔 언제 올라오신 건가요?

70년 7월 31일날 왔어요.

● 왜 서울로 올라오신 거예요?

시골에는 전기도 없고, 텔레비전도 없어요. 면사무소에서 스피커로 “오늘 몇 구역 면사무소 와라, 비 많이 온다, 덥다.” 이런 방송해주는 게 다예요. 전화는 이렇게 다이얼 돌려서 걸면 교환원이 “어디 연결해 줄까요?” 하고 연결해 주는 그런 전화라 아주 갑갑해요. 그런데 우리 시어머니는 부잣집에서 자라셔서 좀 트여 있는 어른이셨어요. 문화생활도 해보고 서울도 왔다 갔다 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우리 애하고 시동생네까지 애들이 다섯이나 되는데 어른으로서는 걱정되신 거죠. 여기서는 아무 발전도 없고 애들 키우는 데는 아니니 팔고 가자고 하신 거예요.

● 선생님은 그 전에 서울에 와 보신 적은 있으세요?

그전에 한 번 창경원 온다고 와봤어요. 우리 둘째 언니가 부평에 사니까 창경원 구경 가자고 해서 형부하고 전차 타고 갔어요. 보니까 ‘어마!’ 싶더라고. 사람도 많고 집도 좋고요.

● 특별히 장위동으로 온 이유가 있나요?

우리 시어른 조카분, 친정 조카분이 용산에 살았어요. 시어머니가 서울 갔다 오시더니만 “개 데리고 내가 땅 보러 갔다.” 그러세요. 그 조카분에게 어디가 제일 싼지 물어보니까 장위동이 제일 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새끼줄로 묶어 측량해서 장위동을 50평 사 놓고 왔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우린 어딘지도 모르죠. 그렇게 술도가 팔고 장위동으로 온 거예요. 그 당시 그 돈 가지고 있으면 강남에 몇 채를 샀을 건데 시어머니는 싼 데 사서 놔두면 집값이 올라가니까 괜찮다는 식으로 생각하신 거지. 또 파는 게 아니고 지어서 우리 식구들 살 거니까 그냥 싼 데 산 거예요.

● 서울로 가자고 결정됐을 때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고향 떠나오니깐 슬프고…. 뭐 엄마 두고 오니까 슬프고 그랬죠.

미나리짱 장위동

● 시어머님이 모든 걸 결정하신 후에 양조장을 정리하고 올라 오신 건가요?

큰 사업장이니까 자식들하고 의논이 돌았어요. 의논 후에 다 왔어요. 어모면에서는 양조장을 살 사람이 없었어요. 그 당시 돈으로 이 천만 원하는 양조장을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김천 시내 부자한테 팔아서 정리했어요. 시동생이 우리 올라오기 1년 전에 먼저 올라와서 이문동에 집 짓고 살면서 장위동에 우리 집을 지은 거예요.

● 올라오실 때 살림살이는 어떻게 하셨어요?

대한통운, 그 곱배⁷⁾같이 큰 트럭이 있어요. 거기에 우리 술독을 장독으로 해서 매주 한 가마씩 넣고, 그 독 몇 개를 실었어요. 또 감자, 보리쌀, 쌀, 밖에서 앓는 평상, 개집, 뭐 명석, 줄장미, 모과나무, 버섯 길러 먹던 느타리버섯 등치기(나무 밑동)…. 우리 시어머니가 있는 살림 다 싣게 하셨어요. 차가 느르니까 아무리 실어도 남아요. 그렇게 그 차는 밤새도록 오고, 우리는 무궁화호 타고 올라왔죠.

● 장위동 처음 와보셨을 때 첫인상은 어떠셨어요?

아주 촌이에요. 그때 장위동에 주택이 딱 차 있지 않았어요. 우리 집을 제일 먼저 지었으니까 그 주변은 다 공터였어요. 우리 집 주위

7) 기차의 화물칸을 일컫는 경북 방언이다.

는 풀도 엉성하고, 논이라 땅도 철벽철벽해요. 허허벌판에다가 주위에 막 뼁도 있고, 쥐도 있고, 지렁이도 있고, 엉망진창이에요. 거기다 와서 보니까 아직 집을 다 안 지었어요. 그래서 집을 풀어놓으니까 장마철이라 베개 다 젖고, 감자는 다 젖고 썩어서 냄새나고, 쌀가마니, 보리쌀 가마니도 다 젖었어요. 근데 집을 덜 지었으니까 집을 옮겨 놓으면 벽돌 바른다고 이리 치우라 하고, 저리 치우라 하고 고생 많이 했어요. 밥해 먹을 데도 없고, 화장실 볼 데도 없고. 수도도 안 당겨오다 보니까 수도물도 없고 그래서 미나리짬⁸⁾에 그 물 나오는 걸 퍼다가 밥해 먹었어요. 수진약국 건너가려면 시커먼 썩은 물에 대나무 다리 놓고 건너다녀야 했어요.⁹⁾ 지금도 그 땅에서는 물이 막 평평 나요. 근데 그 물 퍼다가 밥해 먹고 막 배앓이하고 그랬어요.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전부 위에서 오물 내려오는 걸 퍼다 먹은 거 같아. 그래도 여기 전부 산이고 들 가운데니까 뭐 수도가 없으니, 물을 어떻게 먹어요.

● 힘드셨겠네요.

울었지. 시동생보고 이런 데에 집 지어놓고 오라고 하느냐고 내가 “나 6.25 때도 이렇게 안 지냈다.” 이러니까, 시동생이 “형수는 6.25 피난 잘 편하게 했구마요.” 이래요. 그래서 “나 난리통에도 이런 고

8) 무논과 비슷한 습지에 미나리를 기르는 곳, 땅이 걸고 물이 많이 피는 곳을 말한다. 여기서 ‘짬’은 ‘구멍이’를 의미한다. 장위동 토박이 우덕수씨의 증언에 의하면 현재 장위2동 주민센터(성북구 장위동 69-54) 뒤쪽 땅은 벼농사를 짓기 어려운 곳이었기 때문에 인근 주민들이 미나리짬을 하였다고 한다.

9) 성북구 돌곶이로 134에 있었던 약국으로 1974년 사업 인허가를 받고 영업을 시작해 2023년 폐업하였다.

생은 안 했다.” 그랬죠. 근데 우리 아들은 서울 온 게 좋은 거야. 집 짓는 사람들이 시멘트 포대 쪽 찢고 털어서 던지면 그거 주어다 아이스께끼 사 먹었어요. 그런 거 안 먹어봤으니 엄청 맛있는 거야. 시골에는 얼음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맨날 그 봉지만 나오면 들고 아이스께끼 사러 갔어요. 그래도 시동생이 형 살 집이니까 재료 많이 들여서 지었어요. 시멘트로 얼마나 야물고 단단히 지었는지 나중에 그 자리에 새로 다시 집 지을 때 두드려 부숴보니까 엄청 야물게 지었더라고요.



단층집 시절 작은방으로 들어가는 부엌문 앞에서

● 그 집 주소가 어떻게 되나요?

75의 368번지. 거기서 47년을 살았나.... 단층집에서 17년을 살다가 남편 돌아가고 3개월 만에 시어머니 돌아가시니까 접었어요. 며느리도 봐야 되는데 그 단층집은 화장실도 그냥 텀벙 누는 거라 새색시가 올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자리를 헐고 새로 지었어요. 그때 건축법이 방공법대로 지하를 파라고 해서 지하를 한 층 파고, 지하까지 3층을 지은 거예요.¹⁰⁾ 그거 지어서 지하하고 1층에 두 세대씩 세주고 우리는 2층에 살았어요.



2층으로 올라가는 난간에서 찍은 사진(좌)과 전경(우)

10) 1968년 1.21 사태로 남북간 긴장이 고조되자 당시 서울시장 김현옥은 “71년도까지 350만명의 시민을 전시 체제하에서 대피시킬 수 있는 방공호 구실을 할 지하 건설을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에 정부는 1970년 건축법을 개정하여 인구 20만 이상의 도시에서 지상층의 연면적 200㎡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는 지하층 설치를 의무화하였다. 이 규정은 1999년 폐지되었다.

경북복덕방과 식품가게

● 장위동에 정착하신 후에는 어떤 일을 하셨나요?

우리 남편이 지병이 있어서 몸이 좋진 않았어요. 근데 남편이 글은 좋고, 똑똑하니까 가게를 하나 얻어서 복덕방을 했어요. 경북부동산이라고 했는데 이 부근에서 우리가 제일 잘했어요. 그때는 방 한 칸에 20만 원, 집 한 칸에 100만 원, 150만 원 이랬고, 한 2~300만 원 주면 좋은 집을 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수수료도 얼마 안 돼요. 그래도 안채에 세놓고 그런대로 살았어요.

● 선생님은 다른 일을 안 하셨나요?

당시에는 단층집이 있으면 전부 옆에다가 가게를 넣어서 짓더라고요. 시동생이 우리 집 지을 때도 함석 문으로 드르륵 당기면 열리는 가게를 같이 지었어요. 그렇게 지어놨는데 그 가게가 노니까 우리 시어머니가 날 보고 자꾸 거기서 국수 장사를 하래요. 그래서 처음엔 시골에서 일 열심히 했는데 또 뭘 그런 힘든 일을 하느냐도 안 한다고 했지요. 그러다가 한쪽은 연탄 광으로 쓰고, 한쪽은 뭐 슈퍼라 할 수도 없고 그냥 심심하니까 구멍가게 정도로 해서 장사했죠.

● 그 가게에서는 어떤 걸 파셨어요?

콩나물도 있고, 두부도 있고, 뭐 애들 과자.... 껌, 라면땅, 애들 막 씹어 먹는 쫄쫄이라고 하나? 그런 것도 팔았죠. 그때는 다 1원짜리가

종이예요. 애들이 1원짜리 그 구깃구깃한 돈으로 “껌 주세요. 뭐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저녁에 내놔보면 쭈글쭈글하니까 물건 팔아서 받은 1원짜리를 인두로 다 다려서 고무줄로 묶어놔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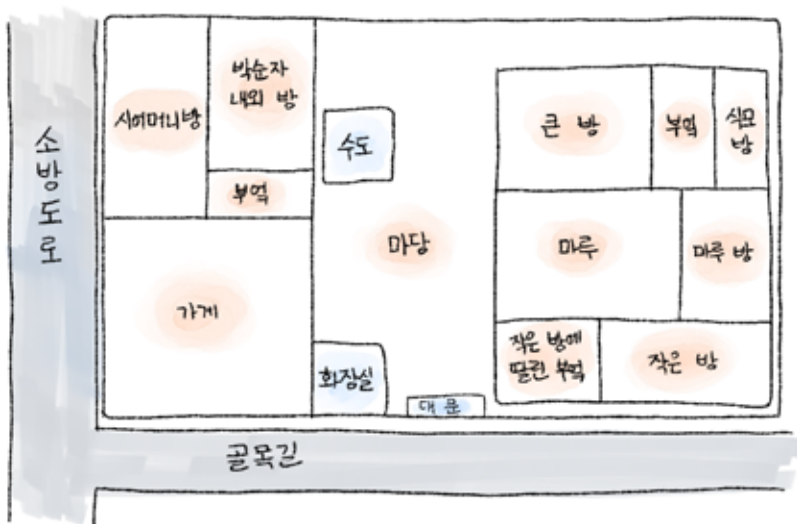
● 복덕방하고 가게는 언제까지 하신 거예요?

고향에서 알던 남자가 미아리로 왔는데 우리 집에 인사하러 오고 만나고 그랬어요. 남편이 86년도에 돌아가고 복덕방 명의를 내 앞으로 이전해 났는데 저보고 동업하재요. 그 간판만 주면 자기가 밖에 일은 다 한다고 그래요. 그런데 그 사람이 밖에서 나쁘게 마음먹으면 간판장이만 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구청에 가서 폐지해 버렸어요. 가게는 남편 돌아가고 눈물 마를 새 없이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하니까 뭐 벌리고 할 여가도 없으니까 그만뒀어요. 내가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었으니까.

● 가게도 하시고, 세도 주셨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때 사시던 집 구조가 어떻게 생겼는지 설명해 주세요.

우리 집이 소방도로 코너 집이에요. 그 동네에서는 우리 집이 제일 컸어요. 전부 30평인데 우리 집은 50평은 됐어요. 50평이니까 우리 시동생이 안채에다 살림집 살고 바깥에는 가게를 열 수 있도록 지었어요. 소방도로 맞닿은 면에 슬래브 상가를 지었는데 가게가 넓어서 방을 만들었어요. 세 식구가 다 쓰지는 못하니까 안채는 세를 놓고 우리는 이 가게채에서 살았어요. 그래서 시부모님이 방 하나 차지하

시고, 하나는 우리가 쓰고 했죠. 안채는 가운데 마루가 있고, 큰 방하고 작은 방은 세를 쪼었어요. 그리고 우리 시동생이 부엌은 사람들 안 보이게 한다고 밖으로 돌아가도록 부엌문을 냈어요. 이 부엌 옆에는 식모 방이 하나 있고,¹¹⁾ 부엌에서 찬 내올 수 있게 마루랑 통하는 문이 있었어요. 마루에는 나오면 또 마루방이 있어요. 화장실은 밖에 텀벙 누는 재래식 화장실 하나를 같이 썼어요. 안채는 연탄을 마루 밑 지하에 뒀는데 부엌에서 밑으로 기어들어 가서 연탄을 재워두고 작은 방에도 부엌이 있는데 이 부엌이 좀 넓어서 거기에 100장씩 재 놓고 썼어요. 우리는 다 가게니까 식품 가게 한쪽에 연탄 한 차씩 재 워뒀어요.



구술자의 설명을 토대로 그린 집 구조

11) 구술자가 덧붙여 설명하기를 시동생이 집을 지을때 고향에서 살던 집을 생각해 조그만 방을 하나 만들었으나, 서울에 올라와서는 식구가 줄었기 때문에 식모를 두지 않았다고 한다.

가발공장 폭발 사고를 목격하다

● 그 당시 가발공장이 있었다고 하는데 언제 생긴 건지 알고 계시는가요?

그 공장은 우리 왔을 때부터 있었어요. 수진약국 건너기 전에 시장에서 언덕바지 내려오는 그 자리가 가발공장이었어요. 인조 가발이 아니고 생머리로 가발을 만들었는데 규모도 엄청 크고 기숙사도 있었어요.

● 공장에 대해 기억나는 게 있으신가요?

동화통상. 내가 50년이 지나도 안 잊어버려요. 봉창으로 보면 파란 가운 입은 사람들이 바글바글해요. 직원이 한 삼천 명 있었어요. 근데 건물이 정식 건물은 아니고 그냥 슬레이트로 지붕을 이었는데 안에는 벚짚으로 지었어요. 공장에 기숙사도 있고, 화장실도 엄청 큰데 칸만 만들어서 지었더라고요. 그때는 건축이 발달하지도 않았고 공장도 잘 지을 필요 없잖아요. 비만 안 맞으면 되니까요. 직원들은 전부 위에 파란 가운 입고 있었는데 나이대는 잘 모르겠고, 다 아가씨들 같았어요. 나도 그때는 새파란 색시 때니까 그걸 자세히 들여다볼 틈이 없었어요.



1970년대 가발공장 작업광경

● 가발공장 직원들이 선생님 가게에서 뭘 사지는 않았나요?

그 사람들은 안 왔어요. 일하는 동안은 밖에 나가지 않으니까, 공장 문이 저쪽에 있었으니 그쪽 가게들에 갔겠죠. 우리 집으로 오려면 빙 돌아서 와야 했어요. 그러니까 자세한 건 모르고 담 넘어 창문으로 보면 사람이 바글바글했던 것만 알아요. 근데 그 공장이 생머리로 가발을 만드니까 비녀 꽂은 사람들이 조금 모아서 가면 돈을 많이 줬어요.

● 사람들이 머리카락을 공장에 팔기도 했나요?

팔았어요. 비녀 꽂은 사람들이 참빛으로 빗으면 머리카락 뭉치가 나오잖아요. 그걸 모아서 옛장수한테 팔면 옛을 많이 줘요. 머리카락을 끊어서 팔기도 했지만 빗어서 나온 머리카락 뭉쳐 있는 걸 정리해서 조금 가져가면 그것도 돈이 됐어요. 옛장수한테 팔면 옛을 많이 줘요. 그리고 그 옛장수 원 사무실이 있잖아요. 거기에 머리카락 뭉

치를 가져오면 값을 많이 쳐줘요. 거기서 쌀 포대 같은 데 하나 넣어
났다가 가발 공장에 파는 거예요. 머리카락 뭉치를 숨아둔 거를 ‘달
비’라고 해요. 안 험클어지게 꼼꼼 묶어서 팔면 돈을 더 줬어요.

● 가발공장에 사고가 있었다고 하던데 언제 일어난 건가요?

한 70 몇 년도쯤 겨울인 거 같아요. 우리 이사 오고 나서 5년 정도
있다가 났으니까요. 보일러가 터져서 쫓겨 나갔어요. 점심시간에 보
일러가 빵 터진 거예요. (왼손으로 반대쪽 팔꿈치를 잡으며)이만한
숯덩어리가 한 50m를 날아와서 그 근처 집 지붕을 뚫고 부엌으로
떨어졌어요. 그 옆에 유리 있는 집은 얇은 유리니까 막 떨어져 깨지
고, 놀랐죠. 다행히 집을 비워놔서 사람은 안 다쳤어요. 그 큰 게 뚫
고 들어왔으니 사람 있었으면 사고 났을 거예요. 그러니 구민들이 구
청에 신고하고 외지로 나가라고 하니까 쫓겨 나갔어요.



1975년 10월 14일 항공사진(좌)과 1977년 4월 13일 항공사진(우)이다.
6개월 사이에 공장이 사라지고 그 터에 집이 지어지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빨간 동그라미는 구술자가 살던 집이다.

3부

가족들 이야기



사람 좋던 남편, 부전자전 야무진 아들

● 바깥분과 어릴 적부터 알고 지내던 사이였는데 성격은 어떠셨나요?

성격 좋아요. 남편이 여기서 돌아갔는데 그때 우리 친구들이 아저씨 가는 데 따라간다고 다 나섰어요. 장지에 갈 때 우리 가족은 영구차에 타고 친구들은 다 못 타서 관광버스를 하나 불러서 갔어요. 장지 갔다가 이제 절에 가는데 그 길이 봉고차나 자가용 지나가는 길 밖에 안되는 거예요. 그래도 그날 일 봐주던 양반이 막 차를 밀고 해서 절까지 차를 끌고 갔어요. 우리 친구들이 우리 아저씨 가는데 따라가 봐야 한다고 49재까지도 다 따라왔어요.

● **덕망이 있으셨네요. 함께 사시면서 좋았던 점이 있으셨나요?**

내 생일이 다가오면 내가 “여봐요 나 뭐 다 와.” 이러면 남편이 “뭐 다 오는데?” 그래요. 생각해 보라고 하면 “생일 다가오나?” 이래요. 그러면 뭐 있어도 반지도 사다 주고, 목걸이도 또 해다 주고, 그런 자질구레한 거를 자상해서 잘했어요. 아기는 아기대로 좋고, 늙은이는 늙은이대로 좋고…. 사람을 잘 다뤘어요.

● **서운하신 적은 없으셨어요?**

그렇게 할 여가도 없고 살리려고 내가 노력 다 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80년도 연탄 땔 땔때 밤에 좀 시장하다 이러면서 날 깨워요. 그때 가스가 있으면 얼른 뭘 해다 드릴 텐데 연탄이니까 부엌 들어가보면 불이 저 밑에 있어요. 그러면 아궁이를 부채로 부치면서 그 연탄불을 살려서 계란프라이라도 하나 하고 우유라도 하나 데워서 가져다드려요. 그러면 “아 이제 잠 올라는 가.” 하면서 자리에 누워요. 그러면 내 마음도 편하고 그래요. 그 뒤에 시부모나 시누이나 누구나 남편한테 잘했다고 말해요. 본인(남편)도 너 때문에 내가 한 3년은 더 살았다고 말하더라고요.



남편 장친한 님

● 아드님 교육 때문에 서울 올라오셨다고 했는데 학교는 다 이 근처에서 다니신 건가요?

장위초등학교, 저기 광운중학교, 서라벌고등학교. 한 집에 앉아서 다 졸업했죠. 옛날엔 애들이 많으니까 한 교실에 70명, 75명 됐어요. 그것도 오전반, 오후반으로 나뉘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 초등학교 다닐 때쯤에 선곡, 장곡이 생긴 거예요.¹²⁾ 장위초등학교는 오래전부터 있었는데 하도 학생이 많으니까, 학교를 새로 지어서 학생들을 나눠 준 거지. 선곡초등학교 생겼을 때 주소대로 잘라서 몇 번지에 사는 애들은 선곡으로 가고, 몇 번지 사는 애들은 장위로 가라고 하나까 애들이 안 가려고 울더라고요. 친구들 다 사귀어 났는데 갑자기 그렇게 빼가니까 안 가려고 울더라고요. 우리 아들은 장위학교를 꼭 다녔어요.



장위동 인근 초등학교 분포와 설립연도

12) 선곡초등학교는 노원구 광운로 2길 1에 있는 초등학교로 1974년 9월에 개교하였고, 장곡초등학교는 성북구 장월로 23길 16에 있는 초등학교로 1978년 3월에 개교하였다.

● 아드님 교육에 신경 쓰셨던 게 있으셨나요?

뭐 하라 말라 할 거 없이 자기가 알아서 했어요. 초등학교 다닐 때는 외아들에다 우리 집이 좀 부하게 산다는 걸 아니까 학교에서 전교 회장을 하라고 했는데 내가 반대했어요. 우리 아들 이름이 ‘장우혁’이에요. 그런데 그때 또 한 반에 ‘장우영’이라는 애가 있었어요. 그 둘이 다 공부를 잘하니까 결국에 개가 회장을 하고 우리 아들이 부회장을 했어요. 그러니까 학교에서 나보고 사친회¹³⁾ 이사장을 하라고 자꾸 연락이 왔는데 거절했어요. 시어머니 모시고 사는데 그거 따라다니면서 치다꺼리할 거름이 있나요. 그래도 아들이 통솔력이 있어서 친구들 앞장서서 이끌고 나가지 따라다니지는 않았어요. 지금도 장위초등학교 동기들 언제 모이라고 하면 모여서 밥 먹고 무슨 일 있으면 전화해서 다 데리고 가고 그래요.

13) 사친회는 아동의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한 교사와 부모의 상호협동체로 청소년 복지 증진, 가정의 생활수준 향상, 청소년 보호·감독을 위한 법률제정, 부모와 교사간 상호협력 등을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에서는 해방 후 교원 후생비를 지원하기 위한 후원회 조직이 있었으며, 6.25 전쟁 기간 중 사친회가 제도화되었다가 1962년 해산되었다. 구술자의 아들이 초등학교에 다녔던 시기는 1970년대이므로 사친회보다는 사친회의 후신인 기성회 또는 육성회였을 가능성이 높다.

● 아드님이 남편분 닮아 성격 좋으신가 봐요.

착하고 야물어요. 장위초등학교 다닐 때 내가 가게를 했으니까 학교 마치고 오다가 하드라도 사 먹으라고 아침마다 용돈을 줬어요. 근데 그거를 마을금고에 저금해서 졸업할 때 되니까 15만 원이 된 거예요. 지금 한 40 몇 년 됐나? 그때 쌀 한 말에 2만 원 정도밖에 안했을 텐데 꽤 큰 돈이죠. 졸업할 때 가니까 앞 받침대에 상품이 쪽 있어서 그거 누가 다 타 가나 했는데 우리 아들이 우등상, 개근상, 저축상 타고 한껏 끌어안고 왔어요.



아들과 함께 소방도로 옆 가게채에서

우리 시어머니 훌륭한 분이세요

● 이야기를 듣다 보니 시어머니께서 집안의 대소사를 주관하신 것 같아요.

사변 나고 다 불탄 집안 살림 일으키셨어요. 6.25를 만나 거의 거지가 되었는데 세무서에서 일하는 조카한테 양조장 허가 하나 내달라고 해서 허가를 받으셨대요. 가마솥 하나 사고, 단지 하나 사서 고두밥 찌고 술을 만드신 거예요. 우리 아버님은 배달하고. 그렇게 돈 모아서 땅 사고 술도가를 지으신 거죠. 아들딸 대학 보내고, 시집장가보내고 아버님 회갑 잔치도 다 하면서 부자로 살았어요. 똑똑한 분이세요. 우리 둘째 시누이 남편 학비도 다 대줬어요. 그분 집안이 의사 집안이라 의과 대학에 붙었는데 촌에서는 공부시키기가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우리 시누하고 중매하고 시어머니가 6년 동안 학비를 다 대주면서 공부시켰어요. 둘째 사위, 둘째 아들, 막내딸, 이 셋을 다 서울에서 대학 시켰어요. 우리 어머니 똑똑하고 훌륭한 분이세요.



둘째 시누이 남편 졸업식 때 찍은 사진. 맨 오른쪽이 박순자 님의 시어머니

● 여장부셨네요.

완고하셨지, 완고하었어요. 딸들도 엄청 엄하게 키우셔서 잘못하면 막 몽둥이 가지고 따라다니기도 하셨어요. 시누이들이 우리 어머니는 며느리한텐 잘하셨다고, 우리는 얼마나 혼나면서 컸는데 그래요.

● 시어머니와 사이 좋으셨나봐요.

완고하시니까 아들이고 딸이고 며느리고, 항상 조이고 살아야 해요. 다리 뻗고 앉지도 못했어요. 딱 앉으면 항상 무릎 꿇고 앉았지. 그리고 저녁에 요를 다듬이질하고 반들반들하게 씻어서, 누우면 매 끝매끝하고 풀 냄새가 싹 나야지 좋아하셨죠. 딸네 집 갔다가 한 일주일 만에 오셔도 내가 다 닦아서 새로 해놔요, 깨끗해도. 그러면 너 이거 하나는 참 마음에 든다고 내가 한 번을 갈아도 꼭 풀 냄새 나도록 요래 이부자리 깨끗이 해준다고 칭찬 많이 들었어요. 그래도 겁은 나요. 어찌해야 눈에 들게 할지 싶어서 항상 긴장한 거죠. 그래도 사이좋았어요. 시누들이 나한테 무슨 한마디를 못 해요. 시어머니가 “야 너희 셋이 다 두드려 얹혀도 너희 올케 하나 못 당한다.” 하고 어테서 입을 떼느냐고 혼내셨어요. 당신께서 나한테 뭐라 하면 뭐라 하셨지, 누가 아무도 못 건드렸어요.

● 아드님을 늦게 얻으셨는데 그때 특별히 해주신 건 없으셨나요?

동서네랑 같이 살 때니까 같이 살 동안 뭐 부러워하지 말고, 평소 처럼 지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큰 조카 태어났을 때는 유모차다, 우유다 뭐 다 해줬는데 우리 아들은 유모차도 못 탔어요. 아들 낳았다고 생색 내지 말고 조용하게 살라고 그러셨죠. 그냥 집안이 평안한 게 좋은 거라고요. 시어머니가 돌아가시기 전에 자식들, 동서 불러서 보관하고 계시던 패물도 공평하게 나눠주셨어요. 그리고 아침에 병원 가셨다가 그날 저녁에 돌아가셨어요. 운명하신다고 둘러앉았는데 시누이가 “언니, 언니. 빨리 와봐. 어머이가 불러.” 이래서 가봤어요. 시누이가 임종 직전이니 차고 계신 오펜 귀걸이를 빼 드리려고 했는데 말리시면서 절 부르더라요. 그걸 시어머니가 딸네들 앞에서 내 손에 쥐어주셨어요. 시누이가 “우리가 가져갈까봐, 어머이가 언니 주래.” 그래요. 시누이들은 남편들을 잘 만나서 덩덩거리고 사는데 너희 올케는 너희 오빠 죽고 없으니. 살기 힘들다고 다 주라고 하시더라요.

효부상을 받다

● 1985년에 효부상을 받으셨던데 어떻게 받게 되신 건가요?

누가 신고했는지는 잘 모르는데 연락이 와서 구청에 가서 받아온 것뿐이에요. 동네에서 추천했을 텐데 신고한 사람이 했다고 말을 안 해주니 누가 한지 모르죠. 착하고 부모 잘 모시고 병든 남편 잘 모시고 그러니까 준거예요. 그때는 효부상이 흔했어요.¹⁴⁾



1985년 받은 효부상

- 14) 성북구청에서 제공받은 효부, 효행 관련 구청장 표창 발급 건수(남아있는 자료를 수기로 집계한 것으로 실제와 오차가 있을 수 있다.)

연 도	1990	1992	1993	1994	1995	1996	2012	2013
발급 건수	30	32	25	4	3	8	7	8
연 도	2014	2015	2016	2017	2018	2019	2020	2023
발급 건수	12	8	7	8	5	3	1	9

● **그때 시어머니께서 뭐라고 말씀해 주셨나요?**

처음엔 내가 안 드리고 이불 속에다 감춰놨어요. 상 받았을 때 어머니가 딸네 집에 가 계셨어요. 그렇게 부산에 갔다 오셨는데 동네 사람들이 우혁이 엄마 저 표창장 탔다고 이른 거죠. 그러니까 “애미야, 그거 가져온나.”하고 혼을 주는 거예요. 그거 왜 자랑스러운 걸 타다 놓고 어른 안 보여주냐고요. “어머니 부끄러워서 그거 못 내놔요, 한 것도 없는데 누가 신청해 그런 걸 줬어요.”이랬더니, “왜? 너는 받고도 남는다.”라고 그러세요. 그래서 보여드렸죠.

● **남편분은 한 말씀 안 하셨어요?**

“그래 착하니까 좋은 일도 있다.” 이러죠. 근데 85년도에 받고, 86년도에 남편이 돌아갔으니까 그때 한창 아플 때였어요. 아플 때니까 나는 좋은 것 없고 그냥 귀찮았어요.

며느리가 마음은 있어도 내색 못 했다는 걸 알아요

● 아드님은 언제 결혼하셨나요?

우리 아들 친구가 중매를 놔줬어요. 그 친구 마누라가 공릉동 한전 연수원¹⁵⁾ 다니는데 같은 회사에 눈이 반짝반짝한 색시가 있다고 소개를 시켜준 거예요. 우리 아들이 그전에는 중매가 들어와서 만나봐도 뭐가 싫다 뭐도 싫다 이랬는데 인연이 되려고 했는지 만나보고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한번 데리고 왔는데 야무져요. 그렇게 만나다가 우리 아들이 한 번 다쳐서 입원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결혼도 안 한 처녀가 “어머니 제가 할게요.” 하면서 간호를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러니 안 예뻐할 수 없잖아요. 그렇게 94년도에 결혼해서 잘살고 있어요.



아들 결혼 때 폐백을 받는 모습

15) 구술자가 말한 내용의 맥락을 살피볼 때 서울특별시 노원구에 있는 한국전력공사 인재개발원을 말한 것으로 보인다.

● 선생님은 시어머니와 사이가 돈독하셨는데 며느리와 사이는 어떠세요?

우리 며느리가 “아이고 어머니 이거 잡수세요, 어머니 출지요.” 이런 애절한 거나 살가운 건 없고, 그냥 기본적인 도리는 해요. 부모는 며느리고 딸이고 구별 안 하는데 며느리 입장에선 친정 식구는 가깝고 시집 식구는 멀죠. 내가 처음엔 좀 서운했는데 살아보니까 마음이 있어도 그 내색을 못 했다는 것을 느껴요. 올 추석에도 “어머니 왜 그건 안 했어요.”라고 물어서 “젊을 때는 이것도 해 먹고, 저것도 해 먹고, 내 힘으로 하니까 다 하고 살았는데 이젠 내가 힘들어. 그러니까 대충 살아, 대충 넘어가.” 그랬어요. 이러니까 진짜 좀 대충 사시지. 그때는 할 거 다 하면서 힘들게 사시고선 이제야 대충 살자 한다고 군지령군지령해요. 그 말속에 마음을 내가 알죠.

● 만약에 며느리 효부상을 주신다면 어떤 내용일까요?

우리 며느리 효부상은 못 받아. 뭐 불효를 했다는 이런 게 아니라 효부상은 환자를 돌보든지 노모를 돌보든지 이런 기준이 있잖아요. 내 식구라고 다 칭찬할 수 있나. 그래도 둘 다 헛돈 안 쓰고 잘 모아서 애들 공부 가르치고 먹고살고 집 장만 하는 거 보면 기특해요. 며느리가 새 옷 사 입고 펄럭거리면서 사치하는 거를 못 봤어요. 출근하는데 회사 가면 유니폼 입으니까 뜨시게만 입고 가면 된대요. 직장도 한전연수원이라 좋고, 정년퇴직까지 10년 남았으니까, 아범보고 살림하라고 하고 자기는 일할 거라고 해요. 아주 둘이는 죽고 못 살아요. 그렇게 자식들 보듬고 서방한테 잘하고, 가정에 아주 충실하니까 고맙고 좋은 거죠.

4부

장위동과 그 주변의 변천사



2010년 장위동 일대

공주 능이 북서울 꿈의 숲이 되기까지

- 아드님 소풍 갔을 때 찍은 사진이 있던데 언제, 어디서 찍은 건가요?



1973년 아들의 소풍날

73년도, 아들 1학년 때 공주 능가서 찍은 거예요.¹⁶⁾ 우리 시아버님이 74년도에 돌아가셨을 때 우리 애가 2학년이었으니까 기억나요. 시골에 있을 때 나는 아기가 없고 동서는 아래로 애들을 돌봐야 하니 내가 조카 딸 소풍 데리고 가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서울 올라와서는 밑에 애도 없고 늦게 하나 낳았으니 따라간다고 따라갔죠. 그때 당시에는 큰 기와집이 있었는데 사람들이 그걸 공주 집이라고 하더라고요.¹⁷⁾ 옛날엔 그쪽에 숲도 있었고, 다랭이 논¹⁸⁾도 있었는데 가을이면 논두렁에 노란 들국화도 피고, 산에는 단풍도 곱게 물들었어요. 당시에 해마다 제사도 지낸다고 하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창녕위궁 재사

-
- 16) 강북구 번동에 있던 능은 조선 제23대 순조의 둘째 딸 북은공주와 부마 창녕위 김병주의 무덤이다. 2002년 북은공주와 창녕위의 무덤은 용인으로 이장되었다.
- 17) 창녕위궁 재사로 추정된다.
- 18) 다랭이논, 산등성이를 계단처럼 깎아 평지 구간을 만들고 그 위에 만들어 놓은 논을 말한다.

● 드림랜드로 바뀌었을 때 기억 나세요?

개장한 날이 1987년 4월 27일이에요. 우리 시어머니 계실 때 거기 공사하니까 한번 같이 가보자고 했는데, 그해 3월에 돌아가셔서 같이 못 갔죠. 나중에 가보니 입구에 분수도 있고, 공중차(케이블카)도 있고, 수영장도 있고 제대로 꾸며놨어요. 그땐 젊으니까 그 공중차도 타 봤어요. 남들 타는데 우리도 한번 타보자고 탔는데 얼마나 무섭던지. 그때 사람 엄청 많고 잘 됐어요. 지금 북서울 안에 있는 그 한옥¹⁹⁾ 마당에서는 전통 혼례식도 올렸어요.



드림랜드 분수 앞에서



1987년 드림랜드 개장 당시

19) 창녕위궁 재사를 말한다. 드림랜드 운영 당시 전통 혼례식 장소로 활용되었다고 한다.

● 지금은 북서울 꿈의 숲은 자주 가세요?

북서울이 오세훈 시장 때 다 뜯고 개조해서 만든 거예요.²⁰⁾ 처음에 여기에 병원을 지으려고 했는데 허가가 안 나서 못 지었어요. 근데 잘해놨어요. 나는 일하는 날 아니면 아침마다 거기 둘레길 걸으면서 운동해요. 봄 되면 길 따라 진달래, 개나리, 벚꽃 다 피고, 공연장에서 공연도 하고, 사람들 공터에서 캠핑도 하고 그래요. 저쪽 전망대에 엘리베이터 타고 올라가서 보면 서울이 다 보여요. 시에서 관리하는 거라 잘해놔서 동네 사람들도 많이 가요. 강북구 사람들은 성북구 사람들 자주 와서 쓴다고 싫어할지 모르겠는데 나도 세금 내는데 같이 쓰는 거죠.



북서울 꿈의 숲과 장위동 전경

20) 2008년 폐장된 드림랜드를 서울시가 인수하여 2009년 10월 시립공원으로 개장하였다.

장위시장이 옛날엔 훨씬 컸어요

● 옛날에 김장철마다 김장 시장이 열렸다고 하던데 기억나시는 곳이 있으신가요?

옛날에는 빈터만 있으면 트럭으로 갔다가 배추를 집채같이 쌓아놓고 팔아서 내가 사고 싶은 대로 샀어요. 장위시장 입구 그 고깃간 옆에도 막 쌓아두고 팔았어요. 여기 말고도 터만 비었다하면 배추 실어도 팔았으니 리어카 가져와서 100포기씩, 50포기씩 소금에 절여 담았는데 지금은 망에다 넣어서 파니까 10포기, 5포기 담아요. 장석시장에도 야채가 많았어요. 장석시장이 161번 버스, 34번 버스 종점 있는 곳에 있었어요.²¹⁾ 가게가 번듯하게 있던 것은 아니고 난전같이 막 있었어요.



1980년대 김장 시장 풍경

21) 장석시장은 장위동 60-1번지에 있었다. 구술자가 말한 버스 종점은 정식 버스 종점은 아니고 차를 돌리면서 임시로 쉬어가는 장소였다고 한다.



재개발이 진행 중인 장석시장 터.
2025년 자이아파트가 들어설 예정이다.

● 지금은 장위시장이 재개발로 규모가 많이 줄었는데 옛날 장위시장은 어느 정도 규모였나요?

장위시장은 지금 장위시장이 아니고 코코마트 있던 자리부터가 시장 자리예요. 그 안에 방앗간도 있고, 튀김집도 있고 말만 시장이지 알קות어요. 옛날 석관시장하고 장위시장하고 차이가 좀 났다고 보면 돼요. 근데 이제 그거를 몇 년 있다가 허물고 아파트를 짓고 저쪽으로 코코마트도 짓고 시장 복판 통로를 내면서 시장이 커졌어요. 그래서 동방 주택에서도 사람들이 내려오고, 또 저쪽 석계역 쪽에서 마을버스 타고 올라오고 이러니까 장위시장이 엄청나게 잘됐어요. 설에는 쌀 몇 가마니로 떡을 만들어놔도 그게 모자를 정도로 팔리고, 팔죽을 끓이면 줄을 서서 먹어보지도 못할 정도로 잘 됐어요. 사람들이

밀려다닐 정도로 복잡했어요. 시장이 좀 퍼져 있으면 이리저리로 들어갈 텐데 저 밑에서 사람들 올라오고, 위에서 사람 내려가고 하니까 밀차 끌고 갈 길이 없을 정도였어요. 그때 시장에서 장사하던 사람들이 지금 다 부자 됐어요. 지금은 재개발한다고 반토막이 된 거예요. 저 꿈지만 남았어, 조그마하게.



장위10구역 재개발 전인 2019년 장위전통시장



장위시장의 위치. 현재는 재개발로 인해 절반 이상이 사라지고 재개발 구역에 포함되지 않은 구역의 상점들만 운영 중이다

● 장위동 주민분들이 코코마트를 많이 기억하시던데 관련된 기억이 있으신가요?

코코마트가 처음에 장위시장에 있던 자리를 허물고 지은 거예요. 지하를 파서 지하는 슈퍼마켓하고 위에는 아파트를 지어서 그걸 다 분양했어요. 돈 좀 있는 사람들은 거기다가 신청했는데 거기서 뭐 장사가 돼야 해 먹죠. 그러니까 전부 비워놓고 있다가 이번에 이제 재개발이 되려고 하니까 보상 문제로 말이 나왔었는데 어떻게 됐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도 1층에 있던 그 할인마트에 물건도 싸고, 생활용품 다 있어서 좋았어요. 빅마트는 그 옆에 지어서 알차게 빼먹었지.



코코마트

● 빅마트도 동네에서 유명한 마트였나 봐요.

빅마트는 그 옆에 있던 마트예요.²²⁾ 코코마트는 지하실이고 빅마트는 그 옆 코너에 있었어요. 빅마트 전에 드림마트가 있었는데 그 빅마트 때문에 드림마트가 문을 닫았어요. 그 위에 가지 지하로는 누가 잘 안 가니까. 빅마트는 한 사람이 운영했는데 안 커도 있을 건 다 있어서 계산대 다섯 개가 맨날 바쁘게 장사가 잘됐어요. 시장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있고, 장위로에서 들어가는 입구도 있어서 이리 들어가서 저리 나가고, 저리 들어와서 이리 나갈 수 있도록 사방이 뚫어져 있었어요.



장위시장에서 빅마트로 들어가는 입구

22) 빅마트는 2013년 4월 개업하였다가 장위10구역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사라졌다.

동방주택, 동방부자, 장위동 고개

● 동방주택단지에 대해 기억 나시는 게 있나요?

동방주택이 전부 이병철 땅이라고, 이병철이 부자라서 이병철이 땅이라고 했는데 그 땅이 누구 땅인지는 몰라요. 지금은 다 빌라로 바뀌었는데 안 헌 집 보면 집들이 커요. 동방주택은 50평, 30평 이런 거는 없어요. 전부 100평 이상이에요. 이쪽은 조그마해도 지하가 있고 1층이 있고 2층 있잖아요. 근데 그거는 1층하고 2층밖에 없어요. 그런데 2층도 세도 못 놓게끔 되어 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오면 나무 계단 통해서 안으로 올라가요. 집 안에서 올라가니까 집에 있는 사람들을 다 봐야 하잖아. 그러니까 한 집 식구나 살지. 지금 새로 재개발 재건축을 한 사람은 고쳤는데 옛날 집은 그대로예요.



동방고개 일대 주택들

● 동방주택에 살던 사람들에 대해 기억 나는 게 있으세요?

동방에서 부자들이 장위시장에 물건 사고 마을버스 타고 올라가고 타고 내려오고 해서 장사가 잘 됐어요. 가게 자리가 없는 데는 좌판으로도 하고 그랬는데 저 동방 부자들이 다 내려와서 시장이 엄청 잘 됐어요. 뭐 나왔다면 뭐 다 떨어가 됐으니까요.

● 교통은 어땠어요?

지하철은 석계역이 생겨서 편리해졌죠.²³⁾ 버스는 16번, 48번, 161번, 34번 있었고, 또 34-1번 인가 그건 서울대학병원 있는데로 가는 거고.²⁴⁾ 그래도 이 장위동에 버스는 좀 있었어요. 청량리 나가는 것도 1, 2대씩은 있고, 상계동, 중계동으로 나가는 것도 있으니까 아주 교통이 나쁜 동네는 아니에요.



장월로와 장위로가 만나는 사거리의 모습. 국민은행(성북구 장월로 88)이 있어 장위동 주민들에게 ‘국민은행 사거리’로 불리기도 했다. 은행은 다른 곳으로 이전한 상태이다.

23) 석계역은 1985년 석관동 주민들의 청원으로 신설되었다.

24) 16번 버스는 1972년 신설된 노선으로, 신설 당시 장위동~남성동(현 사당동, 방배동)까지 운행하였다. 이후 번동~서울대공원까지 노선이 확장되었다가 1995년 29번과 통합된 후 2004년 서울시 대중교통체계 개편 시 1411번으로 변경되었다. 48번 버스는 석관동~영등포까지 운행하던 버스로 후신 노선은 261번이다. 161번은 문화촌~장위동까지 운행하는 버스였고, 34번은 상계동~이대입구까지 운행하였고, 2004년 개편 후 후신 노선은 1017번이다. 34-1번은 하계동~이대입구까지 운행하였고, 후신노선은 172번이다.

● 눈 오면 장위동 고개를 많이 통제했다고 그러더라고요.

원래 수진약국에서 넘어가는 데가 산이었어요. 수진약국 앞이 개천이고 산이 이렇게 막고 있었는데 산을 허물고 나서 거기가 고개가 된 거예요.²⁵⁾ 고개를 넘으면 청량리로 가는 거죠. 옛날 국민은행 자리에 저 미아리 넘어가는 마을버스랑 길은 있었어요. 이제 그걸 석계역 쪽으로 뚫으려고 고가도로로 만들까 어쩔까, 했는데 고가도로를 만들면 길 주변의 집이 도로 밑에 묻혀서 안 된 거예요. 동네가 묻히니까. 지금 저 밑에 있던 단층집을 2층 빌라를 지을 수 있도록 허가 내주고 그 위에 도로를 만들었어요. 지금 그 언덕진 데 내려가면 거기가 옛날 가발공장이 있던 자리예요.



장월로 월곡동 방향(좌)과 장위로 141 일대(우) 언덕진 곳에 만들어진 도로의 모습

25) 장위1동의 남쪽과 장위2동의 동쪽은 월곡산과 맞닿아 있어 지대가 높다. 동방주택단지 주변의 고개를 동방고개라 부르기도 한다.

지금도 지하는 전부 봉제공장이예요

● 장위동에 봉제단지가 유명하잖아요. 그거는 언제쯤 생긴 건지 아시나요?

봉제는 옛날부터 있었어요. 요즘은 건물에 지하를 파니까 공장이 지하에 있는데 옛날에는 단층집이니까 단층집 옆에다 가게 같은 걸 내놓으면 거기에 공장들이 들어갔어요. 떼어서 널고 닫고 하는 함석문, 그런 문 달린 가게에 빈 곳이 있으면 거기서 미싱 넣고 공장을 했어요.

● 보통 봉제공장의 규모는 어느 정도인가요?

상가가 작으면 미싱을 적게 넣고 하고, 한 10명, 미싱 10대 정도 들어가면 큰 공장이에요. 식구끼리 한 대여섯 개 놓고도 하는데 미싱 10개 돌아가면 큰 공장이지요. 그런 곳은 재단사도 있고 시다(보조원)²⁶⁾도 한두 명 두고 그렇게 해요.

● 봉제공장들이 많이 생기기 시작한 때가 언제인가요?

공장들이 그전으로부터 있었는데, 한 80년도 지하 파고부터 더 많이 생겼어요. 지금은 우리나라도 살기가 좋아져서 지하에 잘 안살려고 하잖아요. 그럼 그런 데에 봉제공장이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도 많아요. 지하는 전부 봉제 업체예요. 어디 몰려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26) 일하는 사람 옆에서 그 일을 거들어 주는 사람을 지칭하는 속어이다

니다 보면 누구 집이고 간에 지하 있는 집은 다 봉제예요. 또 공장이 큰 곳은 무슨 홀이나 옛날 목욕탕으로 쓰던 곳에 크게 차리기도 해요. 아무래도 지하 살림 살던 데는 방이 여러 개고 기둥도 있는데 목욕탕은 탁 트여있으니까 공장으로 쓰기 더 낫죠.



봉제공장 사원을 모집하는 전단

● 주로 어떤 걸 만드나요?

잠옷, 잠바, 티 같은 옷들. 만들어서 동대문시장으로도 가고 수출도 해요. 옛날에는 인형 공장도 있었는데 지금은 잘 없어요. 주위에 숨 넣고 이런 거 하러 간다는 소린 들어보긴 했는데 인형공장은 못 봤어요.

● 장위동 주민분들이 운영하시는 곳이 많나요?

일감을 대주는 사람, 원 사장이 있어요. 원단을 주고 언제까지 하라고 해서 하면 그걸 그 집에 가져가면 다리미질하고 포장해서 그 집에서 시장으로 내는 거예요. 말하자면 하청받아서 하는 거지. 그러니까 마진이 적어요. 옷 하나에 천 원짜리도 있고. 백화점으로 나가

는 거는 좀 비싸고, 외국으로 가는 건 더 싸고 그래요.



성북구 장위로 102에 있는 소규모 봉제공장 입구

● 일하시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신가요?

요새는 여자들도 최소 고등학교 졸업은 다 하잖아요. 근데 지금 한 65~70 된 사람들은 옛날에 교육이 그렇게 발전 안 됐으니까, 딸을 낳으면 초등학교만 보내든지, 초등학교도 안 보내던지 그러고선 주로 공장으로 보냈어요. 그런 사람들이 어디서 돈 주고 기술을 배울 수 있는 형편도 아니고 누가 가르쳐 주지도 않으니까 공장 나가서 시다(보조원)하면서 쉬는 시간에 미싱도 봐야보다가 기술이 느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환갑 넘은 사람들 기술이 제일 좋아요. 옛날 집에 세 들어 살았던 사람도 올해 60이 넘었는데 지금도 봉제를 해요. 지금은 그 늙은 사람들이 안경 쓰고 미싱 밟고 외국 사람들이 와서 하지, 국내 젊은 사람들은 봉제공장으로선 잘 안 가요.

5부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47년 동안 반장을 했어요

- 장위동 75번지 집에서 오래 사셨는데 동네 대소사와 관련된 일은 안 하셨나요?

나 이쪽으로 오기 전까지 47년 동안 반장을 했어요. 그때는 우리가 제일 처음 와서 터를 잡기도 했고, 가게도 하고, 우리 남편이 부동산도 하니까 반장을 하라고 하라는 거예요. 하고 싶어서 한 건 아니고 할 사람이 없으니까 했죠. 반장은 그 번지에 살아야 하니까 여기로 이사오면서 반장 자리는 이제 다른 사람한테 주고 여기서는 반장 안 해요.

● 반장은 동네에서 무슨 일을 하나요?

옛날에는 저녁에 반상회도 하고 몇 집 모여서 동네에 있는 이야기도 하고 그랬어요. 구청에서 그런 모임을 많이 하라고 하는데 귀찮으니까 잘 하지는 않았어요. 한 번 모이면 음료수라도 대접해야 하고, 또 그때 전화가 없으니까 모으려면 다 부르러 다녀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냥 반장일만 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전입하려면 통반장도장을 받아야 했으니까 누가 오면 도장 찍어주고 그런 거 하는 거죠. 반회보라고 소식지 같은 거 집집마다 넣어주는 일을 하면 추석이나 설에 2만 5천 원 상품권도 받고 그랬어요.

● 그래도 반장이면 은근히 신경 쓸 게 많았을 것 같아요.

옛날엔 우리 집에 전화하고 텔레비전이 있으니까 해 떨어지면 텔레비전 본다고 다 모여요. 텔레비전 켜 놓으면 저녁으로 애들이 다 보러 와요. 또 전화 오면 온 동네 이야기해 주러 다녔어요. 그땐 전화 한 대 두려면 돈도 많이 들잖아요. 그래서 우리 집으로 전화하면 이웃집에 “아줌마, 아들이 오늘은 회사에서 저녁 먹고 온대요.” 이런 거나, “누구 미국에서 전화 왔어. 빨리 와봐.” 이런 거 전해주려고 돌아다녔어요. 그때는 우리 집이 동네 사랑방이었어요. 우리 시어머니도 계실 땐데 시어머니도 북적북적하니 그런 걸 좋아하셨어요. “도와줘라, 해줘라. 뭐 그거 돈 드나. 조금 귀찮으면 되는데.” 하시면서. 자식들한테는 완고하셔도 그런 거는 속이 넓으세요. 이렇게 남에게 베풀고, 없는 사람 배고픈 사람 밥 주라고 하시고 그런 거 잘 하셨어

요.

● 동네에 대해 모르시는 게 없었겠어요.

장위2동 75번지 2반 반장이었는데 반장 볼 사람이 없으니까 75번지 살지만 74번지까지 반장일을 다 봤어요. 내가 반장 할 때는 스물 몇 집 정도 관리했어요. 반장이 상세하게 알고 지내라 이런 거지 대단한 감투는 아니에요. 몇 년 전부터는 조금씩 쪼개서 10집 정도만 관리하니까 지금은 반장이 엄청 많아요. 그래도 반장을 오래 했으니까 그걸 아는 사람은 “반장 아줌마, 반장 아줌마.” 그렇게 부르기도 해요. 또 내가 제일 오래 살았으니까 다 찾아와요. 시공업자들도 여기 오래 산 사람이 누구냐고 물어서 찾아올 때도 있어요.

놀면 뭐 해

● 한곳에 오래 사시다가 이사하셨는데 무슨 이유가 있나요?

아들네가 분가했어요. 또 지하에 비 많이 오면 지하실에 물 막으러 다녀야 하는데 나 혼자 그 큰집을 관리할 수 없으니까 이리로 왔어요. 나 이사는 머리털 나고 두 번 해본 거예요. 2007년에 우리 손녀딸이 6학년 되니까 아들이 학군 따라서 중계동으로 간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그걸 일주일 남겨놓고 “엄마 우리 살림 나가.” 이렇게 말하는 거야. 일주일 만에 상의도 없이 나간다니까 뭐 서운하고 어찌고 할 새도 없이 금방 50평짜리 그 큰집을 텅 비워놓고 나갔어요. 우리 아들이 엄마 뺏속에서 나와서 처음으로 떨어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내가 한동안 마음을 못 잡았어요.

● 그 슬픔을 어떻게 이겨내셨나요?

집에 가만히 앉아 있으니까 미치겠어요. 눈물은 안 흘렸지만, 마음도 허전하고, 보고 싶고…. 그래서 누가 피자 전단지 돌리는 일 하길래 “그거 좀 나 좀 주면 안 되나? 그거 나도 하면 안 되나? 나 돈 보다는 좀 쫓아다니면 좋겠다.”이랬어요. 그걸 몇 달 해봤어요. 그러니까 그거 붙이면서 돌아다니는 동안은 좀 잊어버리고 저녁에 오면 잠도 잘 오고. 지금은 괜찮아요.

● 지금도 꾸준히 일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지금은 스쿨존 하러 다녀요. 길음동 복지관에서 노인들 일자리 지원해 주는 게 있어요.²⁷⁾ 내가 2018년도부터 했는데 내 동기들은 다가까운 학교로 나가고 나만 저쪽 장월초등학교 스쿨존에서 일해요. 거기 선생님들이 우리 신경 많이 써줘요. 우리 춤다고 장갑도 해주고, 모자도 해주고, 아침마다 교감 선생님이 한바퀴씩 돌면서 수고한다고 인사 나오기도 해요. 오늘 일가면 내일 쉬고, 또 모레 일가고. 이렇게 한 달에 10번 하면 27만 원을 줘요. 나는 팀장이라고 4만 원 더 줘요. 그리고 장려금도 나오니까 연봉으로 따지면 한 400만 원 되나? 놀면 뭐 해. 늙으나 젊으나 소일거리가 있어야지 너무 논다고 좋은 것도 아니에요.

27) 길음종합사회복지관에서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성북구 내 초등학교 급식도우미인 '꿈나무건강지원단', 초등학교 스쿨존의 교통안전 지도 및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꿈나무안전지원단', 독거노인 돌봄 지원 사업인 '달리는 행복열차' 등의 사업을 운영하고 있다.

주변 사람 잘 거두면 언젠가 덕 볼 때가 있겠죠

● 친목 모임 같은 건 없으세요?

주변 이웃들이랑 친목계를 했어요. 매달 2만 5천 원씩 내면 5천 원은 밥 먹고 2만 원은 1년 동안 모아요. 그러면 1년에 한 사람당 24만 원은 모이니까 봄 되면 관광차 하나 빌려서 2박 3일로 강원도도 가고, 부산도 가고, 제주도도 가고 울릉도도 갔다 오고 했어요. 국내 구경은 다했어요. 그때 알던 가이드가 아직도 있어요. 우리가 가이드한테 잘해주니까 우리 아니면 안 가고, 차도 좋은 차로 25인승을 내줬어요. 지금은 나이가 많으니까 돌아가거나, 아파서 들어앉은 사람도 많고, 이사 간 사람들도 있으니까 그렇게 여행 다니기는 힘들고 우리 보다 좀 젊은 사람들은 지금도 놀러 다녀요.



인천 연안부두에서

● 세 살던 분들 하고도 친하셨나요?

안채 세를 줬던 사람들이 몇 번 바뀌었는데 다 한 집 식구처럼 지냈어요. 우리 시어머니 계실 때 “어머니, 어머니” 하면서 잘해주던 분이 계셨어. 근데 그분이 자식이 없으니까 내가 말년에 자주 살펴봐드리고 돌아가실 때는 입관하는 거까지 봤어요. 우리 어머니한테 잘한 걸 갚는다고. 또 다른 집은 딸 하나, 아들 하나, 그리고 영감, 할머니, 그렇게 이사와 살면서 딸은 시집 보내면서 나가고, 아들은 장가간 후에도 함께 살았어요. 근데 이제 우리 남편 돌아가니까 며느리가 산달인데도 초상 다 같이 치러주고, 또 3개월 있다가 시어머니 돌아가시니까 그 집 영감, 할머니 다 초상집에 와서 다 봐주고 그랬죠. 좋은 사람들이야. 지금도 연락해요. 세 사는 사람들 하고도 잘 살았어요. 집세를 안 올리니까 안 나가려 해요. 이층집 짓고 살 때도 지하에 세 사는 사람들 빨래가 잘 안 말라서 꼬뭇한 거 보면 저러다 병 생길까 싶어서 옥상에 갖다 널어주기도 했어요.



세를 살던 이웃들과 단층집 마당에서

● 선생님은 주변 분들하고 꾸준히 연락도 하고, 참 잘 지내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구한테 먼저 전화하고 그런 건 잘 없어요. 근데 친구고 아는 사람이고 만나면 전화부터 기록해요. 내가 전화번호를 안 놓치고 다 기록해서 써놨다가 책 바꾸면 또 다 옮겨 놓고 적어놓고 하니깐 꿀길 수가 없어요. 학교 동기생 할머니들도 간혹가다 전화하면 “아 유 나는 전화번호도 없는데.” 그래요. 도둑놈이든 강패든 누구든 간에 언젠가는 한번 필요할 때가 있어요. 우리 시어머니가 그러셨어요. “얘야. 옆에 강패도 살아야 되고, 거지도 살아야 되고, 도둑놈도 살아야 되고, 그 사람들이 언젠가 우리가 한 번은 필요하다. 그러니 그런 사람 팔시하지 말고 잘 거둬서 살면 언젠가 덕 볼 때가 있다.” 하시면서 그런 사람 잘 거두고 살라고 맨날 그런 소리를 하셨죠. 경찰도 내가 급할 때 좀 이용할 수도 있고, 거지도 탄 놈들이 오면…, 옛날엔 거지도 뭘 안 주면 애먹이는데 그럴 때는 또 거지도 오야지(두목)가 있잖아요. 그런 거 해결해 주기도 하고. 내가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내가 나쁘면 그 사람도 나쁘게 대하니까 나쁘다고 하는 거고, 그러니 내 좋은 게 다 좋은 거야. 그렇게 내가 복을 쌓으면 잘 죽을 것이고. 죽는 복도 잘 타야 해요.



옛집 앞에서 프로필 촬영을 하다가 우연히 만난 옛 이웃과 함께

● 선생님 본인 인생에 대한 소회를 말해 주실 수 있을까요?

난 긍정적이야. 그냥 잘 살았어요. 불평도 없고 원망 안 하고 뭐 내 주어진 복으로 그냥 살아요. 그게 편한 거지 뭐, 누구 원망하면 뭐 해요. 옛날에 태어난 사람 다 고생했지. 지금 안달복달해 봐야 누가 알아줄 사람도 없고 누가 보상해 줄 사람도 없고. 그래도 긍정적으로 사는 게 안 좋겠어요?

에필로그 Epilogue

1강 구술사의 이해 강의에서 “구술은 결국 기억의 문제이고, 그 기억의 특징”을 알려 주셨는데 구술자와의 면담을 통해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5강에 이르기까지 구술사를 “알아가는 과정”이 재미있었습니다. 구술자와의 면담을 통해, 한 사람이 살아온 이야기 속에 사람들은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망각하며 어떻게 이러한 기억을 표현하는지, 또 그 한 개인의 삶에 우리의 문화, 역사가 담겨 있다는 것도 흥미로웠습니다. 딸로, 아내로, 며느리로, 어머니로, 시어머니로, 할머니로 살고 계시는 박순자 구술자님, 면담자로 함께 해주신 주민 기록단 참여자분들, 최종 결과물이 나올 수 있도록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수고해 주신 오진아 선생님, 그리고 실제적이고 즐거운 강의로 졸지 않게 해주신 오제연 교수님 감사드립니다.

김미경

글쓰기는 저에게 어려운 일이지만 잘하고픈 일이었습니다. 이 부조화 속에 고민하던 도중 구술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고, 생소하지만 나도 할 수 있을 거란 기대로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호기심이 많은 저는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이었습니다. 성북문화원 오진아, 우성진 선생님의 성의와 세심한 배려로 큰 부담 없이 과

정을 마칠 수 있어서 그 수고로움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오제연 교수님의 열정적인 강의와 전문적인 구술사 수업을 들을 수 있어서 즐거웠습니다. 한 사람의 인생을 통하여서 그 시대를 볼 수 있는 좋은 시간들이었습니다.

박성민

2023년 가을, 주민기록단 구술사 강의를 듣고 실제 구술 면접에 체험하며 참 행복했습니다. 매 강의마다 열정을 다해 재미있게 설명해주시던 오제연 교수님의 모습도 참 인상적이었고, 성북문화원 오진아 선생님의 헌신적이며 프로페셔널한 모습도 기억에 남습니다. 구술 인터뷰를 하였던 박순자 선생님의 담담한 삶의 모습과 “난 긍정적이야. 그냥 잘 살았어”라는 그 말씀이 얼마나 울림이 크던지요. ‘어떻게 살아야 할까’라는 물음을 갖게 해준 좋은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다시 한걸음 앞으로 내디터 보겠습니다.

신은주

‘2023 주민기록단 교육’을 통해 구술생애사 책 발간에 참여하게 되어 기쁘게 생각합니다. 주민기록단 구술사 교육과 인터뷰 경험을 통해 많은 것을 얻고 느낄 수 있었습니다. 구술 자료의 가치, 인터뷰

방법론, 라포 형성의 중요성을 배우면서, 새로운 시선으로 평범한 사람들의 이야기에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성북구에 살지만 잘 몰랐던 ‘장위동’에 대한 이야기를 박순자 선생님을 통해 들으며, 구술의 중요성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거시적 주체의 주도하에 남겨지는 기록물보다 일반인들의 생활상이 담긴 기록물이 가치를 인정받길 바라며, 그 과정을 잠시 경험해 볼 수 있는 기회를 얻어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최고의 열정 강의를 진행해 주신 성균관대 사학과 오제연 교수님과 배려와 관심을 보여주신 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오진아 선생님께 감사드립니다.

조은영

교육부터 책 발간까지 주관한 것은 올해가 처음이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타인의 삶을 이렇게 자세히 들어볼 기회가 얼마나 있을까 생각해 본 것 같습니다. 찾아볼 때마다 작은 것 하나라도 대접해 주려 하셨던 박순자 선생님의 모습에서 이웃을 대하는 자세를 배울 수 있었습니다. 언제나 좋은 강의로 교육을 이끌어 주셨던 오제연 교수님과 서툰 부분이 많았을 터인데도 좋게 봐주신 주민기록단 교육생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구술자를 소개시켜 주시고, 공식 면담 자리마다 함께 해주신 김원식 선생님께도 감사드립니다.

오진아



이미지 출처

- 14쪽: 남윤중 촬영
- 18쪽: 남윤중 촬영
- 19쪽: 김천시 어모면 홈페이지
- 20쪽: 박순자 제공
- 22쪽: 한국저작권위원회
- 25쪽: 박순자 제공
- 27쪽: 박순자 제공
- 29쪽: 박순자 제공
- 31쪽: 박순자 제공
- 32쪽: 박순자 제공
- 34쪽: 박순자 제공
- 36쪽: 남윤중 촬영
- 41쪽: 박순자 제공
- 42쪽: 박순자 제공(좌)
- 42쪽: 네이버지도 거리뷰(우)
- 45쪽: 김정현(성북문화원 마을아카이브팀) 그림
- 47쪽: 국가기록원
- 48쪽: 국토지리정보원
- 50쪽: 남윤중 촬영
- 52쪽: 박순자 제공

53쪽: 서울역사아카이브
55쪽: 박순자 제공
56쪽: 박순자 제공
59쪽: 박순자 제공
61쪽: 박순자 제공
66쪽: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67쪽: 박순자 제공
68쪽: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69쪽: 박순자 제공
69쪽: 서울기록원
70쪽: 서울연구원 서울연구데이터서비스
71쪽: 서울기록원
72쪽: 서울역사아카이브
73쪽: 성북마을아카이브(상)
73쪽: 국토지리정보원 원본, 성북문화원 제작(하)
74쪽: 서울역사아카이브
75쪽: 성북마을아카이브
76쪽: 성북구청
77쪽: 서울역사아카이브
78쪽: 성북문화원 촬영
80쪽: 성북마을아카이브
81쪽: 성북마을아카이브
84쪽: 남윤중 촬영

90쪽: 박순자 제공

91쪽: 박순자 제공

93쪽: 남윤중 촬영

97쪽: 남윤중 촬영

장위동은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서울의 도시개발과 맞물려 다양한 주거 문화가 공존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 과정에서 유입된 많은 이주민은 먼저 정착한 선주민과 어울려 살며 장위동의 역사를 만들어 나갔습니다. ‘성북 사람들의 구술생애사’ 여덟 번째 주인공은 박순자 님입니다. 70년대 낯선 서울 장위동에 발을 내디뎠던 새댁은 50여 년의 시간이 흐르는 동안 마을 역사를 지켜본 마을의 어르신이 되었습니다. 화려하진 않지만, 착실한 효부이자 따뜻한 이웃으로 더불어 사는 삶을 사신 박순자 님의 이야기를 책으로 만나 보시기 바랍니다.

